

김별아의 문학과 삶



지남력(指南力)에 대하여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고 예종 때 영의정에까지 오른 홍윤성은 ‘성종 실록’ 절기에 기록된 바대로 ‘거침고 광망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지닌 자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이다! 포악무도한 홍윤성이 든든한 ‘백’으로 여겼던 것은 함께 손에 피를 묻혀 공명이 된 세조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극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린 윤근수가 지은 수필 ‘월정만필’을 보면, 홍윤성이 대체 무슨 ‘백’을 믿고 그리도 기세등등하게 날뛰었는가를 알 수 있다.

후세는 역사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했는지 대충 알지언정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것이다!

종교칼럼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 교수·신부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던 과목까지 모두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중간고사를 못 본 경우 기말고사마저 망치면 무척 우울해진다.

배워서 남 주는 공부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만만하지 않은 대학생활에서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기고



이 당재 21세기 문화교육연구회장

꽃이 끝난 자리에 군락(群落)을 이룬 초록 잎이 참으로 곱디곱디. 모처럼 아내와 여수시내에 나왔다가 가까운 오동도에 들렀다.

일상의 삶이 아름다워야

친에 세수하고 화장실에 대사하고 이 닦고 옷을 차려입고 자동차를 타거나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 일하다 집에 돌아온다.

인터넷 사이트 무제한 이용 미끼 사기 ‘주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제한 이용을 미끼로 다른 사이트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가입과 함께 이용요금을 빼가는 신종 파일공유(P2P)사이트들이 적잖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항의하고 취소시키려고 이 사이트를 찾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은 물론 114에도 문의해 보지만 그런 사이트의 실체를 찾지 못한다.

되고 조작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진짜 역사’를 찾겠노라는 열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지켜보려하면 홍윤성의 큰소리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중가요의 노랫말처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잠에서 깨어난 것인지 막 잠들려는 것인지 헷갈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극장에 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식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지남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다.

社說

빛고을문화관 건립 또다시 ‘허송세월’

광주시 ‘빛고을 문화관’ 건립이 또다시 원점에서 맴돌게 됐다. 빛고을 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가 19일 문화관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던 명성예식장을 포함한 건립부지 안건을 ‘백지화’하고, 광주시에 전권을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짓기로 했던 문화관 건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문인들 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에 따른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장마철, 재해취약지역 대비 철저히 해야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붕괴와 침수가 우려되는 위험지구가 200여 곳에 달하는데다 산사태 우려지역도 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 장마철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점검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재해 예방을 게을리할 경우 어떤 피해를 낳는지는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無等鼓

세종 때 태어나 성종까지 6명의 임금 을 모신 놀재 양성지(1415~1482)는 요즘 말로 치면 일종의 폴리페서(Polifessor)였다.

인연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놀재처럼 폴리페서로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폴리페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사육신과 생육신이 추앙받던 시절, 그는 세간의 비난에도 세조 곁에 남아 중화사상과 성리학이 지배하던 풍토 속에 조선의 자주성과 부국강병, 각종 실용적인 정책을 건의했다.

진하면서 폴리페서가 교수직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휴직 처리를 하면 돼 밀쳐야 분전이라는 생각으로 폴리페서의 길로 들어서는 교수들이 많았다.

Table with 3 columns: 광주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